

2016 총선보도 모니터 월간 보고서_ 1월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정치 공론장은 펼치지도 못 해

1월 선거 보도의 주요 소재는 선거구 미획정 문제, 공천 물음 둘러싼 후보들 간의 갈등, 각 당의 선거전략, 격전지 분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선거구에 누가 나올 것인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전하는 뉴스가 많았다.

정당 소식을 다룬 기사 중 절반 정도는 새누리당 소식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보도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부산일보의 정당 소식 기사 전체 112건 중에 56건이, 국제신문은 107건 중에 49건이 새누리당 기사였다. 방송도 마찬가지였다. KBS부산은 전체 기사 37건 중 13건, 부산MBC는 37건 중에 14건, KNN은 28건 중에 14건이 새누리당 소식을 다루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단독으로 리포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없거나 한 두 건에 그쳤지만, 새누리당은 리포트 건수도 가장 많았다. 제목에서 특정한 당을 명시한 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에서 주로 새누리당 인물이 거명되어 실질적으로 해당 후보가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간지 기사의 정당별 구분]

-경남지역 기사, 특별히 정당이 드러나지 않는 선거일반 기사는 목록에서 제외함
-기사 내용의 비중과 실질적 내용이 후보자, 인물을 거론하는 경우 해당 정당기사로 분류함

	부산일보		국제신문	
	정당별 기사수			
	새누리당	56	새누리당	49
	더불어민주당	22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당	10	국민의당	12
	정의당	0	정의당	2
	새+더	8	새+더	9
	새+더+국	6	새+더+국	3
	더+국	8	더+국	5
	기타	2	기타	3
총계		112건		107건

[방송3사 기사목록의 정당별 구분]

-특별히 정당이 드러나지 않는 선거 일반 기사는 목록에서 제외함. 전체기사 목록은 별첨자료에 수록.

	KBS		부산MBC		KNN	
	정당별 기사수					
		13(5)	새누리당	14(6)	새누리당	14(12)
	더불어민주당	4	더불어민주당	5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당	7(2)	국민의당	4(1)	국민의당	1
	정의당	1	정의당	0	정의당	0
	새+더	4(2)	새+더	5(4)	새+더	6(6)

	KBS		부산MBC		KNN	
	정당별 기사수					
	새+더+정	2(2)	새+더+정	0	새+더+정	0
	새+더+국	0	새+더+국	1(1)	새+더+국	2(2)
	더+국	0	더+국	1(1)	더+국	0
총계	31건 보도 (리포트11건)		총 30건 보도 (리포트13건)		총 26건 보도 (리포트21건)	

국제신문은 신선한 인물을 소개한다는 의도로 <패기만만 총선도전자>를 연재했다. 이 코너는 1월 중 8명의 후보를 소개했는데, 당적별로 나누어보면 7명이 새누리당 후보였고 1명만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정한 박종훈 후보의 경우는 해당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 없이 단독 등록을 한 상태였다. 지역적 안배도 더 세심했어야 한다. 1월 중 소개된 후보 8명 중 3명이 중등구에 출마한 후보였다.

국제신문 <패기만만 총선도전자> 기사목록

보도날짜	제목/ 후보명	당적	기사발행시점 해당선거구 후보등록현황
5일(화)	해운대시장갈 이창진 후보 -재송, 반여, 반송동 '상전벽해' 자신	새누리당	새5/더2/무1 (총8명)
6일(수)	금정구 박종훈 후보 -공교육 정상화 모델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더1 (총1명)
7일(목)	사하를 석동현 후보 -사통발달 돌린 도시 만들겠다	새누리당	새5/무2 (총7명)
11일(월)	중동구 임정석 후보 -원도심 살려 젊은이에게 '새 마당' 제공	새누리당	새6 (총6명)
19일(화)	중동구 한선신 후보 -만남노리처럼 어르신 보살피겠다	새누리당	새6 (총6명)
26일(화)	남구을 김태식 후보 -주거, 교통, 교육환경 가장 먼저 개선	새누리당	새1/ 더1 (총2명)
27일(수)	중동구 신금봉 후보 -과감한 계획을 주거환경 개선	새누리당	새6 (총6명)
28일(목)	해운대시장을 김한선 후보 -53사단 역임...이젠 고향서 '총성'	새누리당	새7/ 무1 (총8명)

새누리당은 부산 지역구 정당 득표율 49.9%를 획득했고(19대 총선, 중앙선관위 자료), 18개 의석 중 17석을 가져간 가장 유력한 정당이다. 1월 정당별 기사수가 유권자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경향이었던지는 의문이 남는다. 선거보도에서의 '공정함'이란, 상대적 으로 열세이거나 신인인 후보들을 고루 조명해서 누구나 동등한 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지켜지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도 아쉬웠다.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정당의 정책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고, 당내 경쟁을 통해 누가 어디에 출마할지 받아쓰고 점쳤다. 18개 선거구가 각각 하나의 '의석'에 불과했다. 선거를 통해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론장은 아예 펼치지 못했다.

새누리당 유력 후보들 간의 대결구도 부각... 정치 신인 소외

특히 선거구별로 나선 후보들을 소개하는 보도들은 거의 새누리당 후보. 그 중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인물들 간의 대결로 프레임울 짰다. 부산MBC는 <부산신문- 전. 현직 경쟁에 신인 가세>(1월 26일)에서 전. 현직 의원인 이현승, 이종혁, 이성권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장면을 스케치한 후 직접 인터뷰를 하고, 신인인 이수원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앵커가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사 제목에서는 전. 현직과 신인의 대결구도를 만들었으나 분량에서는 신인에게 불리한 보도였다.

<현직도 예비후보, 계급장 떼고 붙는다> (부산MBC, 1월 27일)는 나성린, 허원제, 정근 예비후보의 인터뷰를 실었으나,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뒤처지는 신병철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프로필 사진으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자료화면으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앞서 소개한 세 명의 대결로 뉴스를 구성했다. 신병철 후보의 사진에는 이름 자막도 없어 인물을 기억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정작 뉴스 말미의 화면에서는 정근 후보를 빼고 나성린, 허원제, 신병철 세 후보의 사진을 골라 어떤 기준으로 세 명을 선정할 것인지 불명확했다.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이미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은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1월 12일 정의당 예비후보 1명 등록) 지상파 3사 및 일간지에 야권 후보들이 조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중량감 있는 인물에 눈길이 쏠리겠지만 시청자의 흥미만 쫓지 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후보자들 간에 균형감을 살려서 보도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부산MBC <현직도 계급장 떼고 붙는다>(1월 27일) 보도화면



제목으로 지면 위에 전셋터 벌어

야당은 김 빼고, 여당 후보는 죽였다 살렸다... 지역주의도 벗어나

부산일보 기사 제목은 전반적으로 자극적이었다. '힘지 꺾칠까', '힘찬 출정가', '총성', '기싸움 치열', '확전 우려', '물량 공세' '원천봉쇄', '곳곳서 아우성', '친노 저격수', '대선 전초전', '비민주의 극치', '신인들의 무덤', '깃발', '구역전쟁', '당선에만 혈안', '격전지', '완장', '본노', '표발', '정면 충돌' 등 전쟁용어나 갈등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다. <연령대별 정치 성향 '극명'...이번에도 '세대 대결' 가나>(1월 5일), <더민주 친노 색깔 빼고 국민의당 호남 색채 입히고>(1월 27일)처럼 세대 간 지역 간 대결 구도에 호소하는 제목도 있었다. <'땃발'이라고> "관심적다고"... 여야 인제영입 PK출대 '심하네'>(1월 12일)에서는 더민주, 국민의당 외부영입 인사를 '호남 출신 일색' 이라 특징짓고, 여야 3당이 공통적으로 PK출신 인사 영입이 전무하다며 걱정했다.

야당 관련한 보도는 부정적인 제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였다. <더민주 "부산 '간판급'이 없네">(1월 15일), <부울경서 존재감 없는 '더민주'>(1월 19일), <부산서도 사퇴론, 더민주 설상가상>(1월 13일), <안철수 신당, 부산서 힘 못 쓰고...>(1월 4일) <간 보러 왔다, 봉하서 자유 받은 안>(1월 13일, 부산일보), <조경태, 박영선 농친 안... 고립되는 국민의당>(1월 22일), <"때쓰면 통하는 정당"... 이미 지 생채기>(1월 28일) 등 위기감과 무능을 강조하는 제목으로 김을 빼 놓았다.

새누리당에 대한 보도는 <"누가 살아남나"... 새누리 PK공천 경쟁 본격 접화>(1월 11일), <내부 공천 풀 싸움 매물, 당 리더십, 역동성 '실종'>(1월 18일), <출마선언도 못하나? 허남식 회견장 봉쇄 살풍경>(1월 26일) 등 공천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심각한 톤으로 중계했다. 하지만 <총선 부산 싸움이 기반 마련>(1월 20일)처럼 내부 갈등은 있을지언정 야당과의 경쟁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강세로 묘사했다.

국회의원 자격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따질 수 있다

... 친박 마케팅 비판 없다

1월 하반기로 갈수록 <친박 인사들 부산 출정> (부산MBC, 1월 15일), <부산진갑 친박 마케팅 경쟁> (KNN, 1월 30일) 등 친박, 진박, 비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새누리당 내 당파를 그래픽으로 정리하는 보도들이 늘었다. 현직 대통령과 얼마나 친한지가 국회의원 적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 텐데, 정치권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 중계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받아쓰기 식, 경마 식 보도보다는 현재 설정된 화두가 적절한지, 누가 왜 이런 프레임에 부각시키는지 따져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지 찾아내는 보도를 기대한다.

현역 평가하고 선거제도 하점 짚은 기사

...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 주는 성실한 보도

현역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다보니 홍보효과도 누리지만, 더 자주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KBS부산은 20대 총선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의원들을 평가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냈다. <부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낙제점>(1월 15일), <입법은 낙제, 재산 증식은 탁월>(1월 27일)에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입법활동 법안을 얼마나 발의했는지, 재산의 증감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집계한 자료를 소개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20대 총선에도 출마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아쉬운 것은 양적 평가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다면적으로 평가한 취재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KBS부산은 <표심-의석 수 괴리 크다>(1월 8일)에서 의미 있는 지적을 했다. 지난 선거를 분석했을 때,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51%인데 의석수는 88%로 정당득표를 대비 6석을 더 가져간 점을 짚어내며,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것이 표심과 의석 수 괴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대부분 보도가 공천 경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민의를 반영한 선거가 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한 발 물러서 통찰해 본 기사였다. 기사 말미에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하면 반대하는 여론이 항상 많다는 중앙선관위의 문제의식을 보여줬는데, 이를 이어가는 기사가 추후 나와도 좋겠다.

부산일보는 <2016년 신년기획 정치 여론조사>를 했다. 부산경남지역 유권자들은 기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80%를 넘고, 총선 때 신인 등장을 바라는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골자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신인 10명 중 4명 "지역구 국회의원 일 잘 못한다">(1월 5일), <새누리 '현역 물갈이' 현실로>(1월 6일), <현역 의원 실종난 민심... 부산 총선판 '지각변동' 조짐>(1월 6일)이라는 기사를 내며 현역 교체에 힘을 실었다. 기존 인물에 대한 피로감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일정 정도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새로운 인물보다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물을 유권자가 원하는지 논의를 이끌어냈다면 더 의미 있었을 것이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당에 턱없이 모자란 개인 지지율... 부실 경쟁력 '도마'>(부산일보, 1월 6일)는 선거 판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선거구별로 정당 지지율과 현역 재지지를 비교해서,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후보들을 가려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에 유용한 후보 경쟁력 지수를 제공한 셈이다. 기사에서도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본부 여론조사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될지도 궁금하지만 누가 일을 잘 할 지는 더 궁금하다. '당락 경쟁력' 말고 '자립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있었으면 한다.

심층기사 없어 아쉽다

1월 초반에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 예비후보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기사가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기사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각 당의 공천 틀을 다룬 기사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둘러싼 현역과 신인 간의 갈등만 부각되고, 어떤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지 분석한 내용이 없다보니, 보도를 계속 지켜보아도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정보에 피로도가 높아졌다.

국제신문은 '선거 5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연속기획 기사를 냈다. 낮은 투표율과 청년들의 의견, 인물과 정책보다 당 간판이 우선인 기존 선거 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분량과 깊이가 아쉬웠다.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단순 나열하거나 문제를 던져놓는 수준에 그쳤다. 투표하지 않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불필요하고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실현이 필요하다는 조직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심층적인 취재가 있었다면 기획의도에 걸맞은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국제신문 '선거 5대 어젠다' 연속기획]

순서	제목	위치/분량	주요내용
<1> 투표율이 힘	세상 바꾸는 한 표... 유권자 권리 포기하면 '불이익 부메랑'	1월1일 4면 상중단	투표율 높은 노인층 겨냥한 법안이 청년층을 위한 법안보다 4배 많아. 최근 전체적인 투표율을 좌락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 [신라대 강경태 국제학부 교수] "투표율 열심히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불신,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 의해 국가가 잘 운영된다는 신화가 존재"
<2> 당 간판 대신 인물과 정책	정책은 없고 줄서기만 난무... 유권자 깨어야 정치가 산다	1월5일 5면 좌중상단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깃발론"이 특강 인품에 기댄 이해당으로 발전. ①자신 할당 미달하거나 득표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 결리(총) - 예비후보 42명 중 14명이 전과 기록 있어 ②지역 원안 파악 못하고 장밋빛 공약 날발하는 후보 경계해야 - 지난 총선 공약 중에 산복도로 5개 차선으로 확대, 원전 모두 폐쇄, 매년 세금 10%삭감, 국회의원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등 황당한 사례 있어 ③새로운 인물 배출 위해 현역과 신인에게 공평한 기회 보장해야
<3> 상전보다 머슴을	특권 내려놓지 않는 금배지들 후보 당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1월6일 5면 우상하단	19대 국회 발의된 법안 중 처리된 비율 40%에 불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양미숙 차장]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가장 일하지 않은 국회로 기록될 것" 국회의원 세비 연 1억4천만원 수준. 여야가 세비 삭감 약속했지만 아직 법안 계류중. 신진국 국회의원은 머슴에 가깝음 - 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차나 지면 없고, 면책특권과

<4> 젊은 대한민국이 보고 싶다	국회의원, 유권자 연령 구조 탓 노인친화 법안이 청년의 3.7배	1월8일 5면 우상하단	19대 부산 지역구 당선자 평균 나이 50.7세. 19대 총선 30대 이하 유권자 비율 38%,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 39%로 불과 1%포인트 차이. 반면 투표에 참여한 30대 이하 31%, 50대 이상 47%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과 공천을 마친 늦어지면서 현역 의원이 유리에 젊은 대한민국 열어
<5> 좋은 선량, 좋은 유권자	"일단 이기고 보자" 일그러진 선거 '네거티브' 심판은 결국 유권자 몫	1월12일 5면 우상하단	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총122건 적발. 영도 이재균 의원은 의원직 상실. 2004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 받은 유권자 50배의 과대표 폭탄. [한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으로 대결하는 이상적인 선거 하고 싶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동일해야 하고, 조직을 동원하려면 실현(은)이 필요해"

불편하게 쓰여진 보도를 보고 싶다

1월은 선거보도가 본격적으로 물이 오르기에에는 일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면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못하는 후보들도 있어 정책이나 공약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언론이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을까.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보들을 쫓아서, 매일 벌어지는 갈등을 따라서, 정치권의 카타르와 유행어를 전하는 안전한 정치권발 뉴스 말고, 더 불편하게 쓰여진, 꼭 필요하고 발칙한 유권자발 심층기사를 보고 싶다. 누가 당선되고 탈락하는 가 하는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풍부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성실히 해 주길 기대한다.

[별첨자료- 1월 방송3사 기사리스트]

	KBS부산	부산MBC	KNN
		1주차	
1.1(금)	<더> 부산시장 총선거특대 구성	<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봉하마을 참배	<새/더/국> 4 총선 부산경남 어떤 성적표? (R)김상철 -법연이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복강석을 지 역위원장 "이건 총선과는 양상 달라" -법연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사태는 법연에 역할하면 민심 풀 것" -법연이 안철수 의원 "사드루지 않고 인물영입 추진할 것"
1.2(토)			<새> 새누리 공천 친박 '현수' (R)김상철 -법연이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불신, 현역의원 교체해야" -법연이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1) "상당식 공천 반드시 관할" 2) "대통령의 뜻 존중" <더> 문재인대표 사무실 출입 허가 인감법 구속
1.3(일)		<-> 4.13총선 예비후보 진영 싸움 (R)이만홍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 언급 (동신대) 음식제공 건강관리 선물 -아당후보 지지발언한 현역 국회의원	<새/더/국> 대권주자 4명 총선 결과에 축적 (R)김상철 -법연이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합심해 한 후 총선에서 평가받겠다" -법연이 문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 속으로 돌아가 민생해결하는 당 되겠다" -법연이 안철수 의원 "새누리당 세력의 확 장을 막고 새로운 정기로 보답하겠다"
		2주차	
1.4(월)	<새/더/경> 총선 승리 대망 (R)김지아 [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단박식" [인터뷰] 김경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 원장 "공약과 가늠기준 정면" [인터뷰] 없음 <새> 현역의원 의원보고서 금지 가치불 신장 "국규력 새누리당 서구 예비후보 등장"	<새/더> "廉"견의 식권 VS 77'6곳 승리 (R)만상민 -법연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사실상의 부산의 미래" -법연이 김경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 원장 "영남에서는 이런 연합 꼭 해야" <-> "선거구 실종 정치 불신 가증 (R)배병호 -법연이 국규력 새누리당 서구 예비후보 "현역의원만 의원보고서 배포할 수 있는 걸 신인 예비후보에게 불공평해" -법연이 차재관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언어 통수로 구성된 탈의위원회 결정 하기 어려운 구조"	<새> 선거구 실종 정치 불신. 있던 법정형 (R)김성기 -법연이 안철수 새누리당 중동구 예비후 보 "합해지는 선거구인데 선거운동에 계 약 없다" -법연이 국규력 새누리당 서구 예비후보 "현역의원만 의원보고서를 우제한 배포할 수 있어 불공평"
1.5(화)	<새/더/경> [신선7]비교 4.13총선 막 울렸다 (R)최재훈 [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인터뷰] 김경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 원장 [인터뷰] 김경미 경의당 부산시당위원장	<새/더/국> [여론조사]2016-4시연에게 묻다 총선 영당 구도 변화? (R)이만홍 -법연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대선까지 영두에 두면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구가 부산. 특히 낙동강 벨트"	

1.6(수)		<새> 시의원 중앙정치 진출에 차별 (R)이만홍 -법연이 이주환 새누리당 연제구 예비후 보, 시의원 재직 시 부산시 재정 통합과도 도인한 공적 소개하고 "청신년 문화공간 편리한 주거공간 생활밀착형 정책 실시하 겠다" -법연이 최형욱 새누리당 중동구 예비후 보, 시의원 재직 시 지방분권 재원 조제 재정확충을 소개하고, "지역의 민심들 대 면, 지역 연대 주장하겠다" -법연이 김우성 새누리당 서하구 예비후 보, 시의원 재직 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확충을 소개하고 "쾌거지원이 급선무"	<새> 새누리 탈당자 혁명... "선거 현수다루자" (R)김성기 -법연이 박대술 새누리당 진주군 의원 "복합된 최구시 전 부지사 경선 참여자격 없어" -국규 새누리당 부산진각 예비후보 등장 (4년 전 무소속 출마 경력 소개) 진성호 새누리당 연제구 예비후보 등장 (탈당 및 더 지역 출마 경력 소개)
1.7(목)	<-> 선거사무소 문도 못 열어 (R)최재훈 [인터뷰] 이지우 새누리당 예비후보 [인터뷰] 정남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인터뷰] 박경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총 보재장 <새> 새누리당 국민참여선거인단 '37 김우성 새누리당 대표 등장	<-> 시하구선관위 특정 후보 위한 행동 격발 -법연이 당직 언급하지 않음	<-> [경남] 이상한 총선, '거창하거나 없거나' (R)진재훈 -이종구 창원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 윤 한홍 마산진해동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장
1.8(금)	<-> V표삼-의석 수 괴리 크다 (R)최재훈 [경남]경남비 권역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인터뷰] 강경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구 확정위원		<새> 새누리당 공천을 혁명 '부, 경 울림이 태 흥' (R)김성기 -법연이 황진하 새누리당 서무총장 "국회의원 중헌권 주권자는 약속 지켜 노력해야" -윤상직 전 장관 인내회 전 대법관 가산 경 모 받는 대상으로 언급, 김희정 전 장 관 가산전 받는 대상으로 언급 <새> 윤상직, 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 부 인
1.9(토)	<-> 예비후보 등록 4명	<새> 새누리당 초정선거구 단수추천 허용 논란	<더/새> [경남]경남비 선거구는 부, 경 총선 바코미터 (R)진재훈 -법연이 김경준 새누리당 김해시장 출마에 경자 김해 지지 놓칠 수 있는 리드 필요" -법연이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국 회의원" 총선결과 목표는 선거, 당정에 떠 들 것" -노근호 김경준 언급 -법연이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 원장 "도민들에 신뢰와 희망주는 선거할 것" -안철수 신당 언급
1.10(일)			<국> 안철수 PFI인물... 3당 체제 가능할까??

			(R) 1. 1인일수 의원 "인일수 개인이 당 에너제 최고의 인재 찾겠다" -발언) 순태화 청원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중) "중도 실용주의 노선 새로운 희망의 세 강당이 뿌리될 것"
3주차			
1.11(월)	<새> 새누리당, 10%가산점 공단지판..(R)최재훈 [인터뷰] 이주환 새누리당 연세구 예비후보 김희경 새누리당 연세구 의원 등장 [인터뷰] 최규재 새누리당 서구 예비후보 유기훈 새누리당 서구 의원 등장 <국> 인일수 '국민의당 오거돈 합류 여부 관심'	<새/더> 공천률 확정 예비 엇갈리 (R)이민용 이주환, 김희수, 최향욱, 심동근 예비후보 등장과 언급 [인터뷰] 박익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공천 세부 후 확인했으므로 이제 부산시 민과 소통하렵니다" [인터뷰]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 원장 "비어있는 지역 중심으로 인물 영입 추진 중" <-> 선관위 선거운동 허용했지만..(R)안생빈 [인터뷰] 노철동 경매당 금강구 예비후보 "사무실 밖에 현수의 걸 수 없고 명함도 돌릴 수 없어" [인터뷰]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선거제도의 공정성 호타라질까 우려,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새> 가물급 신인들 '어디에 출마할까요?' (R)김상기 -인태희 전 대법관, 허남식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장관 자포하면 영상으로 등장 [인터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 무명 신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R)김상철 [인터뷰] 이주환 새누리당 연세구 예비후 보 [인터뷰] 박건목 새누리당 해운대구장을 예비후보 [인터뷰] 허옥경 새누리당 해운대구장을 예비후보 <국> 인일수, 봉하마을 방문에 권 여사 면담
1.12(화)	<국> '비례대표 제안받아' (R)최재훈 [진화인터뷰] 오거돈 전 장관 측근 '비례대표 제안받아' [진화인터뷰] 김충현 국민여당 발기인 장정환씨 시중에 비례대표 이야기 할 수 없어, 당내에서 지원받을 행위 <새> 선거구획정위 구성 개장법안 '뒷북 논란' <경> 통합정의당 부산시당 출범식 열려	<새/더> 공천률 확정 예비 엇갈리 (R)이민용 이주환, 김희수, 최향욱, 심동근 예비후보 등장과 언급 [인터뷰] 박익식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 "공천 세부 후 확인했으므로 이제 부산시 민과 소통하렵니다" [인터뷰] 김경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 원장 "비어있는 지역 중심으로 인물 영입 추진 중" <-> 선관위 선거운동 허용했지만..(R)안생빈 [인터뷰] 노철동 경매당 금강구 예비후보 "사무실 밖에 현수의 걸 수 없고 명함도 돌릴 수 없어" [인터뷰]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선거제도의 공정성 호타라질까 우려,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새> 인태희, 부산 해운대 야인 서울 출마
1.13(수)	<새> 관철형 위주당사 총선 불출마 선언 사상구는 손수조, 장계현으로 여당후보 입 축되었다고 언급		<새> 인태희, 부산 해운대 야인 서울 출마
1.14(목)	<-> 부산공선협, 메니콘도 강사단 출범식	<더/국> 부산이냐? 분열이냐? 연립이냐? (R)이민용 [인터뷰] 노재갑 인일수 신당 창당발기인 "부산의 명망가 영입해서 총선 일할 것" [인터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시하갑 예 비후보 "새누리당 시장, 국회의원 다 뽑았 지만 시하갑은 낯설, 계가 당선된다면 시하	<새> 성급 다가온 총선 '결전 대전포 윤곽' (R)김상기 -허남식 전 부산시장/ 허태경, 심동근 김세 현 해운대구장을 예비후보/ 윤상직 전 강 관/ 손수조, 장계현 사상구 예비후보/ 이주 환 부산전을 예비후보 등장과 언급 (모두

		발견" <새> 인태희 전 대법관 서울 출마 결심 밝혀 [인터뷰] 최규재 새누리당 서구 예비후보 유기훈 새누리당 서구 의원 등장 <-> 부산공선협 선거구사단 분대식	새누리당
1.15(금)	<새> 부산 국회의원 입법활동 '누가?' (R)최재훈 [인터뷰]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 교수 "정당인 보고 선택하는 유권자가 대부분이 라던 의원들이 입법활동 적극적으로 할 '필 요 없을 것' <새> 윤상직 부경관 기장군 출마 공식 선언	<새> 진박 인사들 부산 출정 (R)이민용 -윤상직 등장 및 출마의 변 소개/ VS 안경 률, 김한선, 박건목 해운대구장을 예비후보 언급 [인터뷰]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 "계가 최강수 장관, 그중이 대통령의 무 언의 메시지" -김희경 전 여성부 장관 후보 소개/ VS 이 주환, 이태동, 박재환 연세구 예비후보 언 급 [인터뷰]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하고 함께 말할 사람 필요" -허남식 전 의원 후보 소개/ VS 나성민 부 산신갑 의원 언급 -허남식 전 부산시장 언급	<-> "이제 지켜질 공약이냐" 총선공약 백화 (R)김재훈 -이태호 창원시장 예비후보, 정규현 미산 합포 예비후보, 이종구 창원진해 예비후보, 지용현 시하갑 예비후보 언급
1.16(토)	<국> 국민의당, 국회의원 부산시당 창당.. 이연 판도 변화		
1.17(일)		<새/더> 지역선거구 새 인물 부재 '핵심인 총선' (R)김상철 [인터뷰]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계가 최강수 장관, 그게 대통령의 무언의 메시지" [인터뷰] 조경태 의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격한 가 따져야"	<새> 새누리당 '현역 물갈이' 물 건너가냐? (R)김상기 -발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가 좋은 후보, 상황 심으로 뽑힌 후보가 경쟁력 있어" <새/더> 지역선거구 새 인물 부재 '핵심인 총선' (R)김상철 [인터뷰]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계가 최강수 장관, 그게 대통령의 무언의 메시지" [인터뷰] 조경태 의원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격한 가 따져야"
4주차			
1.18(월)	<새> 전략공천 엇다면서.. (R)최재훈 인태희 전 대법관과 이문 당협 갈등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장 [인터뷰] 지용현 시하을 예비후보 "지역구들에게는 심각한 정치불신대" [인터뷰] 지덕발씨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 근 <국> 국민의당 부산시당 오는 28일 공식 창당		

1.19(화)	<p><디/세> 탈출 새누리당 입당 (R)박선자 - 1) 조경태 의원 "정치가 특기만을 갖거나 정파적 이념 뿐 아니라 게 선택이 정치에 경중 출리갈"</p> <p><세/디/타> 한덕 의원들도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p> <p><국> 나성민, 이현승, 하태경, 김장실, 배재정 의원 언급</p>	<p><세/디/타>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탈당 (R)이만용 -[인터뷰] 조경태 의원 "민주당, 패자리를 찾거나 정파적 이념 뿐 아니라 게 선택이 정치에 경중 출리갈" -[인터뷰] 김장실, 김명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위원장 "사실상 새누리당과 같은 언행 없애 해 당혹스럽지 않아"</p> <p><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총선 공약 발표</p> <p><국> 국민의당 부천시당 내일 창당발기인대회</p>	<p><디/세> 조경태 탈당 '새누리당으로 갈아탈까' (R)김상철 -[인터뷰] 조경태 의원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국가안위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고를 것" "반대편을 위한 야당의 모습도 지켜봐야"</p>
1.20(수)	<p><국> 국민의당 부천시당 창당 발기인 대회 열려</p> <p><세> 허남식 前부천시장, 29일 시하급 출마선언</p>	<p><국> 국민의당 부천시도 잇따라 창당발기인대회 열려</p> <p><세> 조경태 새누리 입당발에 반발 확산</p> <p><세> 허남식 前부천시장, 29일 시하급 출마선언</p>	<p><디/세> 낙항강 벨트 혼돈 '문재인 차출론까지' (R)김강형 -[별언] 석중현 새누리당 사하을 예비후보 "의사확보에만 애를리는 중수장지" 허남식 전 부천시당 동당 -[인터뷰] 김장실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이 전시장에 과거에 갇힌 인물 내사면 야당의 프레임에 갇혀 어려워진다"</p>
1.21(목)	<p><세/디/타> 박철이나 역풍아나 (R)최재훈 -[별언] 조경태 의원 "주지못이 당을 본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저를 선택한 것" -[인터뷰] 유정동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당 총선거비담당 "당경있는 후보 영입 작업중"</p> <p><세> 문대성 의원, 인천 남동갑 출마하기로</p>	<p><세> 조경태 새누리당 입당, 사하을 당혹 (R)이만용 -[인터뷰] 조경태 의원 "국민과 바라보고 정치하겠다" -[인터뷰] 석중현 새누리당 사하을 예비후보 "조경태 입당은 정파적 반발" -[전화인터뷰] 김명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당위원장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안했다면 사립이라 인원 한 명 노는 것 이외의 변화 있을까."</p> <p><디>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 탈당 기저확진</p>	<p><세/디/타> 조경태 새누리 입당 '부산 야당 어택해' (R)김상기 -[별언] 조경태 의원 "후심 없기 않고 국민 바라보는 정치하겠다" -[전화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들이 어떻게 놓치냐, 안타깝다. 저는 김해와 낙동강벨트 사수"</p>
1.22(금)	<p><세> 국회선진화법, 부산어원가리도 갈등 (R)최재훈 같은 새누리당 내 부산출신 의원들 간의 갈등을 보도함 -[인터뷰] 김재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선진화법 논의하는 것은 타행적" -[인터뷰]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의 말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논의하는 것 본인주적"</p> <p><디> 사하을 야당예비후보, 조경태 '심판문 피론'</p>	<p><세/디/타> 사하을 여야 예비후보, 조경태 의원 입당 비난</p>	
1.23(토)	<p><세> SNS로 후보 검증 (R)공용조 -[별언] 전신현 합법재판소 연구원 "낙선운동 급거가 징부와 정해에 대한 비판을 급지하면 국민주권주의와 대외계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어 위험해 위반"</p>	<p><세> 부산청어저지서미전대, 총선후보 SNS검증</p>	

	<p>-[인터뷰] 연미숙 부산청어저지서미전대 사무국장 "지역에 맞는 공약이지, 타당하지 검토해야"</p> <p><디> 최인호 가세, 사하갑도 격전 예고</p>		
5주차			
1.25(월)	<p><세> 경거 옥설... 출마선언 무산 (R)최재훈 -[별언] 김장실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이 전시장에 민트 열어야만 10년" -[별언] 김학수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이 전시장에 사하갑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출마주겠다" -[별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급 예비후보 "총선 경우 영입 남겨두고 출마선언은 정치적 질서 확보" -[인터뷰] 허남식 전 부천시당 행정 강행을 바탕으로 중앙정치권에 진출해 서부산 발전 이르기위해 출마했다"</p>	<p><세/디/타> [기해] 출선 격전지 '사하구' 벌써 후끈 (R)이만용 -[인터뷰] 허남식 전 부천시당 "사하구로 왔다만 부분을 중앙정치권에 가서 해결할 것" -[별언] 김장실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이 전 시장 출마가 주류되지 않아" -[별언] 김학수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부산을 낙후시킨 김장실이 이 전시장" -[별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급 예비후보 "정기치 않았던 지역 세상이 발전시키겠다는 것 구민을 응원하는 것"</p> <p><세/디/타> [기해] 부산진출 전, 현직 경쟁에 신신기세 (R)이만용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주민들로부터 총선하던 사업 마무리 해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도심철도 이전해서 경제활성화"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의원, 외교관의 경험 살릴 것" -이수원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출마 의 번 언급... 인터뷰 없음</p> <p><국> 부산시장 창당 이연연대 가능성은? (R)김강형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개발위원장 "전국에서 청년과 인재 모아 교육 기회줄 것" -[인터뷰] 김현우 국민의당 부천시당위원장 "이러한 연대 논의할 단계 아냐. 좀 더 기다려야"</p> <p><세> 새누리당, 김장실, 김학수 후보에 집고초치</p>	<p><세/디/타> 허남식 전 시장 '출마 회견장 난장판' (R)김상철 -[별언] 김학수 새누리당 사하급 예비후보 "이 전 시장이 사하갑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공동 출마하겠음" -[전화인터뷰] 허남식 전 부천시당 "중앙정치권에 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출마" -[별언] 김장실 새누리당 김장실 예비후보 선 거대핵분방 "개보 결과 이 시장 최후근의 충격적인 내용 여러 건 있다" -[별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급 예비후보 "아이없는 출마에 주민들도 냉소"</p> <p><세/디/타> 선거구획정 '부산 영도 서구 합쳐야' (R)김상기 -[전화인터뷰] 선거구 획정위원 "기왕, 간단한 방법은 영도와 서구를 합치는 것" -김무성, 유기준 의원 언급</p>
1.26(화)	<p><국> 부산서 잇따라 들어오자... (R)최재훈 -[인터뷰] 안철수 의원 "기득권 양당구조가 깨져야 대한민국과 부산이 발전" -[인터뷰] 김현우 국민의당 부천시당 공동 위원장 "원칙은 독자적으로 후보하는 것, 아직 연대는 생각 안 해"</p> <p><디> 문재인, 부산 출마할까?</p>	<p><세> [기해] 부산진출 전, 현직 경쟁에 신신기세 (R)이만용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주민들로부터 총선하던 사업 마무리 해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도심철도 이전해서 경제활성화" -[인터뷰] 이현승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의원, 외교관의 경험 살릴 것" -이수원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출마 의 번 언급... 인터뷰 없음</p> <p><국> 부산시장 창당 이연연대 가능성은? (R)김강형 -[인터뷰] 안철수 국민의당 인재개발위원장 "전국에서 청년과 인재 모아 교육 기회줄 것" -[인터뷰] 김현우 국민의당 부천시당위원장 "이러한 연대 논의할 단계 아냐. 좀 더 기다려야"</p> <p><세> 새누리당, 김장실, 김학수 후보에 집고초치</p>	<p><디/세> 문재인 야권 진출... 문재연 부산 출마' (R)김강형 -[인터뷰] 김현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당위원장 "문재연 대표가 함께 출마해주실는 게 도움되겠다해서 요청할 생각"</p> <p>뉴스인트로로 그려내려는 국민의당 있지만 내용 중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음</p>
1.27(수)	<p><세> 입법엔 '낙제', 재산 증식은 '특별' (R)최재훈 김재현, 유재준, 이현승, 나성민, 김경준, 김희정, 김도은 박선자 이진혜, 조경태 의원</p>	<p><세> 현직도 예비후보, 개표장 떠고 붙는다 (R)이만용 -[인터뷰] 나성민 새누리당 부산진출 예비후보 "창조경제, 부산시의 소프트웨어 개발"</p>	<p><디> 다민주 영입인사 참가 토크콘서트 열려</p>

	경의회, 김부성, 배재정 언급	발하고 복지정책 구상할 것" -인티뷰 허원제 새누리당 부산진갑 예비 후보 "우리 지역이 대통령 정책과 다른 노선 길이 예가 다시 내려왔다" -인티뷰 중군 새누리당 부산진갑 예비후보 "서울에서 온 국회의원 아래 이 지역에 행정 살 지역 국회의원 뽑아야" -산병철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경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언급...인티뷰 없음	
	<국> 가칭 국민회의 부산시장 창당대회 열려	<국> 국민회의 부산시장 창당대회 개최	
	<대> 더민주당 영입인사 '더불어콘서트'	사하를 새누리당원 "경선 당원 30% 포함 해야"	
1.28(목)		<새> 최 독립선거... 누가 것말 꽃? (R)어만용 -인티뷰 인정을 새누리당 기강해문대급 예비후보 "일자리 많은 부지도시 되도록" -인티뷰 윤성덕 새누리당 기강해문대급 예비후보 "필요하면선진 키워 일자리창출" -인티뷰 김원선 새누리당 기강해문대급 예비후보 "누구보다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공직 마차" -인티뷰 박건록 새누리당 기강해문대급 예비후보 "양심적이고 청결하게 공생활" -김단복 무소속후보 새누리당 복당 계획 언급...인티뷰 없음	<새> <국> "합의5권역"5권역 "본선보다 자결하다" (R)김경철 -해문대(김경) 지역 후보 분석 -인티뷰 허원제 "해문대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재가 추진해왔던 일 -인티뷰 살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교육 문호를 통해 해문대를 공격하는 도 시로 만들 것" -인티뷰 김새현 예비후보 "53차단 이(김)이고 뉴타운 건설할 것" -이치우, 한병철, 김병택 예비후보는 프로 필 사인으로 소개 -김단복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언급 -오가튼 전 장관 언급
1.29(금)	<새> 전직 국회의원들 잇따라 총선 출사표 -이원제, 장계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 소식 장면		<새> [총선격전지] '부산 사하갑 전직 시장이 반수 (R)김상철' -인티뷰 허남식 전 부산시장 "시장으로서는 좋았던 서부산별관을 중앙영 치권에 가서 내려왔었다" -발언 김상철 새누리당 사하갑 예비후보 "말이바른 10년을 굳은 연정하려는 정치" -인티뷰 김석수 새누리당 사하갑 예비후 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후보가 격임 지" -인티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예 비후보 "지난 수년동안 말바탕에서 주민들 과 함께 할기에 누가 오면 자선있다"
1.30(토)		<대> 연희정 총남도지사 부산서 특강	<새> [총선격전지] 부산진갑 전박 마케팅 경쟁 (R)김상철 -인티뷰 나성민 새누리당 부산진갑 예비 후보 "후보들마다 자기가 전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티뷰 허원제 새누리당 부산진갑 예비 후보 "최근에 대통령과 10시간 한 길 걸어 온 진실한 사람" -인티뷰 김근 새누리당 부산진갑 예비후 보 "서로서로 끌어놓으면 서울 다 가버리 고 없는데 뭐합니까" -인티뷰 김경준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예비후보 "새누리당 당당목식은 안된다는 경사가 피치고 있어"

1.31(일)	<새> 조경태 의원 사무실 표지판 훼손돼 수사	<새> 조경태 의원실 사무실 인내관 훼손 용의자 추적			-산병철 정해정 오승철 후보는 프로필 사 진으로만 언급 <새> [총선격전지] 부산진을, 불꽃튀는 재선전쟁 -인티뷰 이원성 새누리당 부산진을 예비 후보 "연변 했다 그만두면 친구결전 미래 없애 재선이란 필요" -인티뷰 이종현 새누리당 부산진을 예비 후보 "누가 그동안 지역발전에 가장 많은 일을 했는가" -인티뷰 이상권 새누리당 부산진을 예비 후보 "대통령과 국경운영, 일본에서 외교 관 다양한 경험 살려 달릴 것" -인티뷰 이수원 새누리당 부산진을 예비 후보 "신인의 활기로 주민의 마음 잃고 경 치 바꾸겠다" -더민주당 조경환 박희경 후보 프로필 사 진으로 소개 <새> 조경태 국회의원 사무실 간판 훼손	
정당별 기사수	더불어민주당	13(5)	새누리당	14(6)	새누리당	14(12)
	더불어민주당	4	더불어민주당	5	더불어민주당	3(1)
	통합국민의당	7(2)	통합국민의당	4(1)	통합국민의당	1
	통합정의당	1	통합정의당	0	통합정의당	0
	새+더	4(2)	새+더	5(4)	새+더	6(6)
	새+더+경	2(2)	새+더+경	0	새+더+경	0
	새+더+국	0	새+더+국	1(1)	새+더+국	2(2)
	더+국	0	더+국	1(1)	더+국	0
	정당구분없음	6(4)	정당구분없음	7(3)	정당구분없음	2(2)
총계	37건 보도 (리포트15건)	총 37건 보도 (리포트16건)		총 28건 보도 (리포트23건)		